

토종 OTT, 생존전략 '새 판 짜기'

막강한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토종 OTT들이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콘텐츠 확장을 위해 경쟁사와 손을 잡는 합종연횡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공룡을 맞아 토종 OTT들이 생존 방법을 찾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디즈니, 웨이브 서비스 이달 종료 국내 통신사들과 서비스 협력 추진 넷플릭스에 주도권 뺏긴 토종 OTT 대규모 투자·K-콘텐츠 확보로 경쟁



막강한 콘텐츠 영향력을 갖춘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이 속도를 내면서 토종 OTT들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 등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디즈니플러스(위)와 웨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모범택시'.

● 디즈니, 웨이브 서비스 이달 종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OTT에서 자사 콘텐츠를 철수했다. 웨이브에 따르면 월정액 영화 상품에서 제공하던 '어벤져스', '스타워즈', '겨울왕국' 등 100여 편의 디즈니 콘텐츠를 이달 말까지만 서비스한다. 권리사인 디즈니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하반기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플러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웨이브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디즈니가 웨이브를 경쟁관계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디즈니는 2019년 디즈니플러스를 출범하기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콘텐츠 제공을 중단했다. 업계는 웨이브 외에 다른 국내 OTT에서도 콘텐츠 제휴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는 또한

최근 신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로 오상호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사업부 전무를 임명했다. 오 대표는 국내 영화 세일즈, 배급 및 마케팅 업무를 비롯해 각종 영화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미디어·콘텐츠 전문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한 국내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며 디즈니 코리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신기업들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이 디즈니플러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 한국시장 장악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로 국내 OTT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디즈니플러스까지 진출할 경우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용자수가 급격히 늘었다. 전 세계 가입자는 2억 명을 넘어섰고, 한국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2월 기준 넷플릭스의 월 사용자 수(MAU)는 1001만3283명으로 지난해 1월(470만4524명)보다 113%나 증가했다. 이는 토

종 OTT 웨이브, 티빙, U+모바일tv, 시즌, 왓챠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약 56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K-콘텐츠 선점에 나섰다.

● 토종 OTT 대규모 투자로 대응

국내 OTT 기업들은 디즈니플러스와 넷플릭스 등 외산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인 오리지널 K-콘텐츠를 확보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웨이브는 2025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주주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10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웨이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전략본부 신설하고,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영입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설립할 예정이다.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관련 협업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OTT '시즌'을 서비스 중인 KT는 콘텐츠 전문 법인 스튜디오니를 설립하고 대규모 콘텐츠 투자에 나선다. 스튜디오니는 2023년 말까지 원천 IP 1000여 개 이상, 드라마 IP 100개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다. KT는 이를 위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업계 간 콘텐츠 협력도 늘고 있다.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일부를 웨이브를 통해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CJ CGV, KDX 등과 함께 '미디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김영근기자 dionys@donga.com



LG전자 '오브제 360° 공기청정기' 출시

LG전자는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사진)를 11일 출시했다. LG 공기청정기의 첫 오브제컬렉션 모델이다. 이에 따라 LG 오브제컬렉션 제품군은 14종으로 늘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네이처 그린 색상을 적용했다. 대표 제품(A S351NGFA)은 3월 출시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의 성능을 그대로 답았다. 청정면적은 114m²로 넓어졌고, 위쪽과 아래쪽에 클린부스터의 청정거리도 기존보다 늘어났다.

인공지능 센서를 추가 구매해서 연동할 수도 있다. 공기 관리가 필요한 곳에 센서를 두고 함께 사용하면 공기청정기만 사용할 때보다 약 5분 빠르게 오염공기를 감지한 뒤 해당 공간의 공기를 정화한다. 인공지능 센서는 최대 3개월까지 연결할 수 있다.

신제품은 운전도 변경과 필터 교체시기 등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기능도 갖췄다. 신제품 출하가는 청정면적 기준 66m²(AS201NGFA)는 149만 원, 114m²(AS351NGFA)는 189만 원이다.

SKT, 5월11일까지 V컬러링 통해 '줍깅' 캠페인



SK텔레콤은 구독 서비스 V컬러링을 통해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줍깅'을 장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사진)을 벌인다. '줍깅'이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줍다+조깅'의 줄임말로, 스웨덴을 중심으로 시작된 건강과 환경을 함께변에 청기는 사회적 챌린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V컬러링 앱에서 줍깅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고객 500명에게 친환경 크로스백, 손 세정제, 친환경 마스크, 쓰레기봉투, 집게 등으로 구성된 줍깅 키트를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상 다운로드 후 본인의 V컬러링으로 설정까지 마친 고객 10명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1주→5주' 액면분할 카카오 주가에 관심집중

12~14일까지 매매 일시정지

액면분할하는 카카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카카오는 15일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분할(1주→5주)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매매가 일시 정지된다.

카카오는 2월25일 액면분할을 공시한 뒤 주가가 15% 상승했다. 9일에도 전일보다 1.82%(1만 원) 오른 5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는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통주식 수가 늘면서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높아져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 카카

오엔터테인먼트 등 신사업 성장, 지분을 보유한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렸다. 삼성증권은 기존 6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신증권도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였다. KB증권은 54만 원에서 64만 5000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예처럼 액면분할 후 한동안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근 기자

LGU+ 유상사지급제폰 개통 원스톱 서비스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몰 유상을 통해 국내 첫 지급제 단말기 개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공식온라인파트너사인 쇼마제시와 제휴를 맺고 지급제 단말기를 판매한다. 고객은 유상을 통해 지급제폰 구매부터 요금제 가입, 유심 개통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2%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셀프개통'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통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SK텔레콤은 구독 서비스 V컬러링을 통해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줍깅'을 장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사진)을 벌인다. '줍깅'이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줍다+조깅'의 줄임말로, 스웨덴을 중심으로 시작된 건강과 환경을 함께변에 청기는 사회적 챌린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V컬러링 앱에서 줍깅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고객 500명에게 친환경 크로스백, 손 세정제, 친환경 마스크, 쓰레기봉투, 집게 등으로 구성된 줍깅 키트를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상 다운로드 후 본인의 V컬러링으로 설정까지 마친 고객 10명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오늘의 날씨			12일(월)		
서울 30/80	인천 60/80	춘천 30/80	13 16	12 16	9 17
강릉 20/80	대전 30/80	전주 60/70	11 19	9 17	11 19
광주 60/60	대구 30/80	부산 30/80	12 18	9 18	12 19
창원 30/80	제주 70/90	지역	10 17	15 20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의욕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여마의 날이다.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현실에서의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뒤엎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금전문제도 해결되거나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겹살일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이다. 명예가 뒤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호랑이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뒤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와 다른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오늘은 망신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정신적 불안감 또한 초래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과 같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여마의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겹살일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쉽사리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망신살에 귀문살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여마일이다. 지살과 여마의 만남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사방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겹살일이다. 장성이 겹살을 만났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화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다. 그러나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오늘은 망신살 일이다.